광산구, 쓰레기·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인력 보강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무휴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활 폐기물(쓰레기)과 불법 현수막 제거에 집중한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2021년 1790건에서 2022년 321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097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을 제때 수거하지 않았다는 '미수거' 관련으로, 광산구는 현행 수거 방식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시설관리공단이 수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종량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생활폐기물 미수거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올해 수거 차량과 인력 보강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특히 현장 청소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1일 수거'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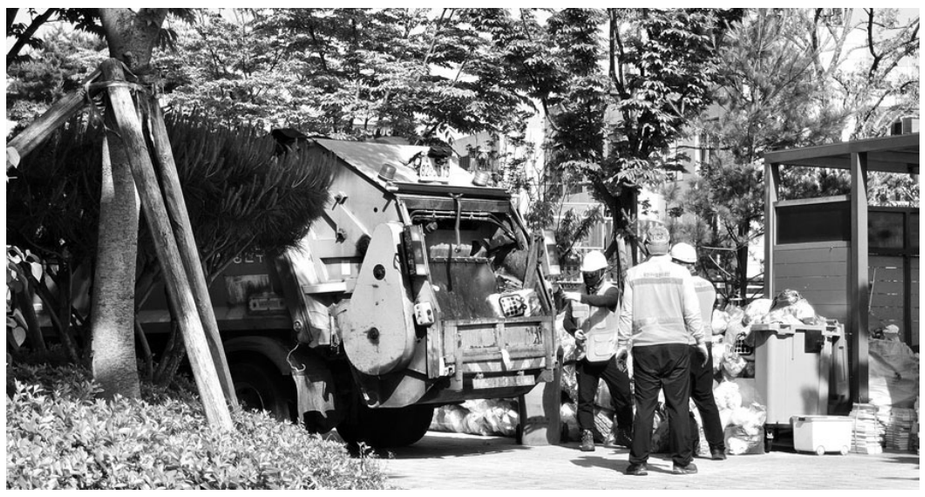
광산구는 '2023년 과학기술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선정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수거차가 몇 시에, 어디서, 얼마만큼 종량제 봉투를 수거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로 전송하는 장비 등도 개발 중이다.

구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 장비를 수거차에 장착해 일일 수거를 위한 최적의 동선을 마련하고, 미수거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는 또 폐의약품 수집·운반은 광산우체국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젤타입 아이스팩' 배출 감소와 친환경 아이스팩(물) 사용 증가로 필요성이 낮아진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는 등 기존 업무와 사업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광산구는 환경부 '친환경 수소 청소차 시범 운영' 공모 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 청소차를 3대를 투입하는 등 수거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1일수거제'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이 핵심이다. 지난해 광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82만 건으로, 광산구는 35%(29만 건)를 차지했다. 2023년 광산구에 게시됐던 현수막 30만 2000건 중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적법 현수막은 1만 2000건에 불과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쓰레기 집하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해당 불법 현수막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로 광주시 전체 과태료 부과 비율(2.3%)보다는 높았지만, '게릴라성 분양 광고 현수막' 난립 등으로 단속 및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광산구는 올해부터 연중 무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과 야간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으로 100%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양 광고 관련 사업 시행사, 건설사 등 사업주체들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주민은 물론 (사회)단체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 참여자수 제한을 없애 시민 중심의 효과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난립, 생활쓰레기 미수거 등은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라면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정
자립준비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광주 광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 225명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등을 제공한다.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 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도전+프로그램'을 마치면 참여 수당과 함께 중기과정 최대 220만 원, 장기과정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사업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연계해 참여 청년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워크넷(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및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당당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천원 행복밥상 송정동 '가순이네'
매주 금요일 운영…전액 성금 기부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6일 '천원의 사랑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는 송정1동 '가순이네' 식당을 찾아 지역 돌봄 이웃과 식사를 나누며 안부를 살폈다.

1인 고립 가구와 취약계층 등이 단돈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사랑 행복한 밥상'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되고 있다.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기영철)에서 지역주민 후원 및 나눔을 바탕으로 재료비를 지원하고, '가순이네' 식당에서 매주 금요일 30여 명의 돌봄 이웃을 초청해 밥과 국, 다섯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밥값으로 받은 1000원은 전액 연말 돌봄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가순이네'서 주민과 점심을 함께 한 박 구청장은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노력과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광산구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방안 찾는다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간담회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산구의회에서 보육 교직원의 권익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들은 "사회 환경이 고도화하면서 보육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아지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에서 보육교직원의 30%가 보육 활동에 대한 권익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교직원의 고충을 처리해 주고,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광산구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해 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42곳으로, 지난해에만 31곳이 늘었다.

윤혜영 의원은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귀중하다"며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사업 논의
사업계획 관련 부서 의견 청취

광산구의회가 부지 변경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는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변경과 관련해 광산구 유관부서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광산구 공무원과 광산구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어룡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야기꽃도서관과의 시설 공유에 따른 이용불편 민원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행정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56억 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부지로 청사 바로 옆 2필지를 매입하고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용역기획' 단계에서 사업부지 이전 의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현재 장소보다 선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주차용지가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변경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현석 의원은 "부지 선정은 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행·재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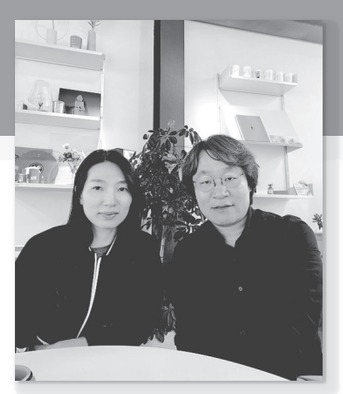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